

안봉려관 큰 스님 행적

안봉려관 큰스님이 1900년에 화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고승이 부처님을 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걸 받으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그 옛날 시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보면 동네어른들은 미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속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서 인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부처님을 진짜 모시고 그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예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저녁에 예불을 하는데 이제 동네 청년들도 저런 요망한 사람 봐두면 우리 도민이 우리 마을이 이제 다 뭐할 것이니까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스님은 바로 또 몽을 주신거야 몽을 딱 주시고 빨리 오늘 저녁에 도피해라 산천단으로 올라가서 한라산 백록담으로 가라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펄박을 받으니까 참 괴롭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를 허둥지둥 가면서 백록담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제주 불교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원력을 주신다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죽는대로 내버려주세요 하고 당신이 자료가 좀 이렇긴 한데 제가 듣기론 그랬어요 떨어지니까 그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느 선덕에 떨어졌죠 그래서 기절한 거예요 까막까치가 막 옷을 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깨나고 보니까 좀 일어나서 뭐하니까 그 당시 산천단에 거기가 소림사예요 지금은 단어를 찾으니까 소림사입니다. 산천단 산천단만 했는데 소림사는 이름만 가지고 가서 탄 절을 짓고 있고 산천단은 곰솔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인제 집을 짓고서는 관음사를 눈이 쌓여서 못 올라가면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북에 있는 그 청년들은 나무를 쟁여놓고 이분을 태우려고 이제 방문을 여니까 미소를 착 웃으면서 하는 게 빛 보인 거예요 부처님을 안아다가 장작 위에다 놓고 불을 때니까 부처님은 타질 않았어요. 그 스님은 도피를 했고. 뒷날은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부처님만 꿈꿈 묶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죠 그분들도 놀라죠 사람이면 놀라죠 놀래서 막 어딜 갔나 해서 찾고 찾고 해매는데 거기에 옷을 보면 그냥 막 까막까치가 쪼아놓은 장삼, 우리 같은 큰, 부처님 앞에 입는 그 옷이었는데 그 옷을 가져다가 농속에 넣어놨답니다. 진원일 스님, 진원일 교수님이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진원일편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적이 일어나서 했고. 또 한 번은 절에 다니는 신도의 남편이 그 호적을 내려서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오만군데 다 다녀도 옛길을 몰라서 아이고 봉려관스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봉려관스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깐 내가 무슨 복으로 그걸 알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7월 15일 백중날 비가 작작 오는데 햇빛이 갑자기 짱 했답니다. 그렇게 짱 할 때에 딱 보니까 100m 시신이 있는거예요 저기 가봐라 시신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불자였고 절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 이 큰스님이 뭐했다 해서 기적이 또 일어났고. 이분이 인제 또 비양도를 이제 부처님을 구하려고, 여기는 지금은 문화도시가 되고 세계자유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비양도를 부처님을 구할까 해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파도가 세서 배가 다 떨어지고 사람 옷이 다 뭐했지만 이분은 보선 신은 보선 짹 짹 물을 튕긴 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되니까 아 부처님의 복력으로 내가 이렇게 뭐 했구나 해서 그때 발심해서 머리를 깎고. 또 인제 꿈으로 너는 대홍사가서 삭발을 해라. 삭발을 해서 가사장삼을 입고 제주도 잠자는 불교를 일으켜라. 찾

아 찾아 보길도로 어디로 대홍사를 찾아가니 대홍사 가는 거기에 큰 조실스님, 조실스님도
 몽을 얻을 때, 오늘은 여왕이 올 테니까 도량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접을 잘 해라. 이렇게
 대중들 앞에 아침 공양시간에, 공양이라면 아침 밥먹는 시간에 그렇게 애길 했어요. 하루는
 기다려도 어느 분 오진 않고 저녁 해가 떨어질 무렵에 출출한 여성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
 한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절을 하고 조실스님께 절을 하면서 내 삭발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불법에는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삭발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도량을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구경을 하라 해서 저 도량을 구경하고 옛날에는 열반당입
 니다. 요즘은 스님들이 돌아가셔도 뭐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산화장 나무로.
 그리고 이분이 인제 올라가는데 열반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아픈 신음소리가 나니까 이
 분은 뭘 하고 있나 해서 문을 때리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문동병을 앓고 여기는 대
 홍사 주지스님 상자, 일본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차기의 주지를 뭐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령게 병을 앓고 있어서 죽을 날자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인제 가보니까 당
 신이 기도하고 뭐하면 병이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다시 돌아와서 대홍사에 내
 려서 원주스님 원주스님 앞에서 스님 3년 묵은 된장 있으면 한 동이만 주세요. 뭐 할랍니까
 이 스님이 아픈 스님 병을 고쳐보겠다. 그러니까 밀쳐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된장을 한
 동이 드리니까 또 불 때는 거기 가서 불절을 굶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흘러가는 하천 물에
 깨끗이 수건가지고 그 몸둥이를 닦고 된장을 발랐는데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냥 신음소리
 를 해도 된장을 바르고 그 위에 불찰을 막 발라가지고 3일정도 기도하면서 그걸 발랐어. 3
 일이 되니까 투들투들투들 딱지가 입으면서 떨어지니까 본인이 일어나서 다니고 큰절로 가
 서 나는 이렇게 병이 다 나아간다 하니까 니 병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거 불러와라 근데 그
 안봉려관 스님이 그디 가서 하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돈도 좋고 토지도 좋고 쌀도 좋다. 말
 하는 데로 내가 주마. 나는 쌀도 돈도 토지도 다 필요없습니다. 삭발 머리를 깎아서 가사장
 삼을 입고 제주의 잠자는 흥흥한 제주도의 잠자는 불교를 일으켜서 도민을 끌어안을 수 있
 는 그런 원력을 가질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애길 하니까 대중공사라 하면 대중들
 모여가지고 이래 이래 했는데 어찌냐 하니까 다 찬성이죠. 그니까 전무후무 그런 일은 전에
 도 없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해서 삭발염의를 하고 가사장삼을 입히고 그
 래서 이분이 5월 날 내려오셔 가지고 해월 굴에서 기도하고 관음사를 창건한거예요. 그러면
 서 이제 그 해에 선방에서 공부를 했고 사집 사교 대교과까지 짝 배워. 그거 우리가 할라든
 지금은 4년제 승가대학으로 나왔지만 옛날엔 1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닭은바가 없고
 뭐가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보아하니 여사에 있는 인물은 아니니까 그걸 해가지
 고 제주 관음사는 대홍사 포교소로 했고 또 품수도 받았고 그래서 제주도 오니 제주도민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번은 이분을 죽이려고 죽창부가 몇 백 명 3백 명인가 4
 백 명 오백 명이구나 오백 명을 데리고 이분을 죽이려고 죽창 대장이 막 갔는데 안개가 막
 졌어요, 거기가 지금 말하면 오등동이에요 오등동. 오등동 어느 처사님 집에 갔는데 오등동
 에 가니까 안개가 딱 끼가지고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나미아무타불. 이 박복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랴 그분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
 이 이분을 딱 보고서는 아 이건 뭐할게 아니다 싶어서 죽창부 대장 앞에 대장을 나를 만나
 라. 왜냐고 그러니까 당신 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있다. 그렇게 되니 의심스러우면 병
 풍을 쳐가지고 병풍 뒤에 숨어서 보면 자객이 그날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
 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 아 나는 이게 뭐할게 아니라 가서 자세히 들어봐야겠
 다 해서 다시 한번 물으니까 어느 날 11시 몇 분에 보면 허수아비를 해놔서 이불 덮어놓고

병풍을 쳐 병풍 뒤에서 보라. 아 진짜 11시가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하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와서 그냥 목에다 칼을 꽂고 서는 가는 거죠. 그걸 보고나니까 자기가 참회를 하고 나는 아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졌던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 봉려관스님을 따라 다니고 정말 큰스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했던 기적이 또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불사를 하는데 참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정말 세속말로 파란만장한 그것을 곳곳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관음사를 창건했고 법화사를 창건하고 나는 듣기로 창건입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중창인데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흥했어요.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 들어오면서 절오백당오백을 다 소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6년 동안 무불이었어요. 무불인데 이 화북출신 안봉려관스님이 불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화사 불탑사, 백련사, 고관사, 고산 월성사, 서산사, 원만사, 성림사, 영천사, 월정사 또 대각사, 산천단은 소림사로. 제가 찾아낸게 몇 개 되고 내가 듣기로만 한건 큰 사찰들만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도 이분이 기도를 하는동안 6년동안 이양반이 항일 투쟁에 자금조달과 아주 정말로 뭐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판가서 종을 사다가 금종을 사다가 병발을 완료 한 거예요. 항일 항쟁 일어나기 이전에 그니까 미리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황사평사에서 병발 의병을 완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가 자료에도 보면 하지만 일원이 몇푼이고 뭐는 소한마리고 하다보면 3억 몇천이 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법정사라고 하는, 항일 항쟁 동상 세워진데 제일 가슴 아팠던게 뭐냐. 제가 거기 가보니까 빠진 사람이 네분이예요. 다른 분들도 빠졌지만 가장 안봉려관스님 오일화스님 김석윤스님 안도월스님 이 분은 거기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빠져있어서 내가 너무 거기 가서 눈물이 나고 아 정말 이건 아니구나. 그러다보니까 내가 역사를 바르게 하자 하다보니까 더 강요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가도 몇 번 불려서 가고 기자들도 KBS SBS 한번 무쇠술들 깨져있는거 법정사 그 터, 지금 이름만 가져다가 또 다른 태고종의 사찰이 되지 그 원 터는 저기에 보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숲이고 뭐고 그대로 있어요 물도 있고. 그렇게 돼있는 상태고 원만사를 그 물을 할때에도 그건 자료에도 약간 있어요. 백록담 가서 제주도 물허벅 저가지고 물을 저으면서 딱딱 걸어오면서 한방울씩 떨치고 와서 일꾼이 거기 물 여기 파고있어라 여기 파도 물이 잘 안날 것이다 해서 거기 와서 물을 부은게 물이 솟아나서 지금도 거기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원만사 가보면 태고종 아주 크게 잘 뒤했고 거기 비석을 내가 가보니까 방동하스님이 비석을 창건했다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그래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방동하스님은 관음사의 처사, 불목이라면은 나무해오고 불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1910년에 10년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11년 12년에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항일 항쟁에는 이 양반도 많이 했죠. 노력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봐서 이렇게 물 담고 있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자리에요 물 부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자리고. 제가 듣기로는 법화사 위에 토굴 토굴 하나까 토굴 굴이 있어요, 굴 내가 찾은지는 4년 됐습니다. 올라가보니까 거기도 해월굴보단 조금 크나마나 한데 거기는 지금 그냥 굴로 있어요. 그냥 숲이 우거져있고 습한 그대로의.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법화사를 지을라니까 거기 논밭에 물이 많고 엄청나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만사에 있으면서 법화사를 창건했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3년에 해명스님이 세계적인 포교사였어요 포교사스님을 큰스님을 초빙해다가 정말 죽은 분들이고 해일 터져서 막 하니까 수록재를 지내고 관공서까지 다 합류해서 수록재를 크게 두 번 지냈더라고요. 두 번 지냈고 법화사를 해서 낙성식 할 때 해명스님 법문도 잘 했고, 김연일 스님 삼일운동 전에 항일운동할때에 도순지에 주재소 가서 불태울때도 그땐 김연일 스님 주지를 쥐가지고 하고

여기는 또 초대 안도월스님을 주고 당신은 뒤에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금조달 의식 주조달 이렇게 하면서 정말 투사를 하신 분이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 짝박하니까 책에 뭐 할 순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하지만 시절, 저는 그렇게 압니다. 모든 일은 할려고 해도 내가 안되는 걸 보고서 아 모든 것은 때와 시절 인연이 닿았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성취를 할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도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나마 요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사를 받았는데 이 분들은 뭐 현대 연구하는 분들도 김석운 이렇게 사문스님 사문스님이라고 했는데 김석운이가 사문 호가 그런데, 사문스님이 아닙니다. 계룡산에서 오서 가지고 큰 스님인데 이 양반은 천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천공을 가사를 받은거지 사람으로 받은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사문스님이 줬다 이렇게 하는게 그건 아니고 천공을 받았다 하더라고. 천공을 받아서 가사를 수호하고 당신 정진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오도를 한거죠. 무사자통이란게 자기 스스로 깨우쳤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간지 알아주고 했지만 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서버리니까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인식을 안할거예요. 아 그랬나보다 이렇게 하지 그 어르신들은 엄청 빠저리게 아 이런 분들이 어딴냐 상대편 보기만 해도 무당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뭐 뭐 풀을 뜯어다가 팔려 먹어라 그때 당시 약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병이 나아요 그리고 내가 좀 만져주마. 근데 부처님, 당시 저도 불가사의했던 부분이 내가 기도를 하면 정말 간절히 하면 저희들도 감회를 받아서 거짓으로 생각을 안하고 진실로 여기는데. 기도를 많이하고 하다보면 일반 풀이지만 이 스님이 해주면 약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병을 많이 고치고 김영이란 사람이 총독부에 있었어요. 막 죽도록 아파서 그러는데 이 스님을 찾아와서 관음사에서 수양하면서 그 병을 다 나았어요. 스님 내가 뭘 해드리면 좋습니까 그림 땅 5만평을 등기를 해라 김영이가, 지금도 그 자료에 보면 김영이 총독부에 있는 김영이가 땅 5만평을 관음사에 등기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번만큼은 제가 5대손인데, 불가로 5대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손이 민폐 어리니까 큰어르신이 지금까지도 빛을 못보고 있는데 항일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성으로서 운동가요 정말 자금조달과 뭐. 그 해월굴앞에 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미래까지 다 아시는거예요 미래에 알고 당신이 죽을 때 연기가 바로 올라가면 관음사가 무사할 것이고 올라가다 회오리바람 불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도월 스님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갔죠 또 그 다음에 대상날에 안봉려관 스님이 갔죠. 안봉려관 스님이 예언에서 열반계송을 읊은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다음해에 관음사가 소실됐죠. 그렇게 된거보면 이 양반도 버섯을 먹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타살이 아닌가. 왜냐하면 외부적인 천일파요 뭘 파요 그 당시에는 위험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일본군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밝히진 않고 큰 뭐가 없어서 하고 있지만 듣기로는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증언을 해서 버섯을 먹고 죽지 않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외부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할때는 아 이렇게 해서 뭐하지 않았나 워나게 많은 것을 하고 신도가 구름몰리듯 몇만명씩 몇천명씩 이렇게 할 때 큰 스님들 초빙해왔지만 당신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 스님들이. 원력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가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주지가 무능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지가 알아서 다 하지만 내가 그 명예를 갖지 아니하고 주로 받침을 해주신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건 분명했고. 그래서 해명스님이나 연일스님이나 안도월스님이나 오일화스님 이런분들에게도 그렇게. 여성이고 남성한테 그렇게 유언을 해주면서 할 때 얼마만큼 가지고 큰스님들을. 그러니까 대홍사에 있는 스님이든 백양사에 있는 스님이든 제주도에 안다녀간 사람이 없고 일본 순경들을 관음

사에 그 옛날에 뜨거운 목욕탕을 해서 큰스님도 와서 거기서 쉬고 씻고. 순경 순사들도 와서 그리고 순사들은 스님들 함부로 손을 못대게끔 막아놓으면서 그 역할이 보통 역할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정말로 지금도 자손들이 직계 가족들은 그만 못한 처사님들도 표창받고 뭐를 하고, 표창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깃뺏아져 있지만 이분이 알고본다면 한용운, 한용운스님 그 시대에 뭐해서 자금조달한거 가져가서 임시정부 거기에 가서 잘 썼노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와같이 이분은 정말로 제주도에서 한다면 그래서 3개월전에 병발을 완료하고 3개월 후에 항일항쟁 터지니 이분의 덕이 아니고는 어떻게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딱 훑어봤을 때는 그런가보다 하지만 꼼꼼히 생각하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아니까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에 행장 소개했던 이부분인데 간단하게 해서 그 부분에는 사찰도. 지금 항일 운동 서명 받고 싶어요. 이 양반이 정말로 독립 뭐 하셨던 분이. 이런 분은요 도민들도 알고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뭐 해야됩니다. 작년에 평화음악제를 달빛음악제를 1회 열었습니다. 안봉려관스님 항쟁 하는 총 쏘면서 그렇게 한 것도 했고. 공모전 했고, 올해까지 2회전 신행수기 공모전 했고. 차차 해가고 있습니다.